

2006년도 사우디 정부 예산 개요

-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에 따르면, 2006년도 사우디의 재정지출예산은 전년대비 20% 증가한 893억3000만 달러(3,350억 리알), 재정수입은 39% 늘어난 1,040억달러(3,900억 리알)로서 146억7,000만 달러의 재정수지 흑자예산으로 편성되었음.
- 2005년도 사우디 정부예산은 재정지출이 22% 늘어난 909억 달러에 이른 반면, 고유가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계획대비 2배나 크게 증가한 1,480억 달러에 달함에 따라 정부재정 수지는 571억 달러의 사상 최고 흑자를 달성하였음.
- 2006년도 예산은 유가를 배럴당 평균 35달러로 계산하여 편성되었는바, 유가가 배럴당 50~60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에도 큰 폭의 재정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한편, 사우디 재무부는 2005년도 재정수지 흑자를 공공부채 상환, 특별 인프라프로젝트 수행, 개발기금 확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. 이에 따라 이란-이라크 전쟁, 걸프전등 과도한 재정지출로 1998년에 GDP의 100%를 초과하는 등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문부채는 2005년말에는 GDP의 41% 수준인 126억7000만 달러(4,750억 리알)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.

□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사우디 정부는 교육, 보건, 사회보장, 자치 서비스, 상하수도 등 사회인프라 구축 등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특히,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부문에 전체예산의 26%인 233억 달러를 배정하였는바, 2006년도 주요부문별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- 교육 및 인력개발 : 233억 달러(873억 리알)
-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 : 83억 달러(310억 리알)
- 자치행정 서비스 : 36억 달러 (134억 리알)
- 교통 및 통신부문 : 31억 달러(115억 리알)
- 상·하수, 농업 및 인프라 : 60억 달러 (225억 리알)

(자료제공: 두바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차경진 (☎3779-6686)
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